

번역윤리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

윤성우 · 이향

(한국외대)

1. 왜 윤리가 화두인가?

20세기 들어 언어학, 정신분석학, 인류학,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가장 큰 화두는 언어였으며, 그러한 관심은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로 명명되는 인문학의 대대적 방향전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폭발적 발전이 전(全)지구적 차원에서 체감되면서, 기후 및 환경 문제, 인간과 동물의 생명 및 그 보살핌의 문제, 다양한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전쟁과 테러 문제 등이 핵심적 화두로 떠올랐다. 21세기는 환경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동물윤리, 전쟁 상황에서의 윤리의 문제를 대면해야 하는 ‘윤리적 전회’(ethical turn)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유럽에서 탄생한 번역학 역시 윤리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두 언어가 만나는 번역의 공간에 서게 되면, 그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자의 언어를 만나는 것이 인간조건이 되어버린 오늘날, 번역윤리 문제가 번역학의 핵심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번역윤리’라는 개념의 포괄성을 염두에 둘 때,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 역시 무한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를 모두 개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지점, 즉 철학과 번역학의 접점에서 번역윤리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윤리라는 주제의 성격상, 이 지점이 이 문제를 고찰하는 최적의 좌표라는 판단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번역학 탄생 이전에 철학의 영역에서 번역윤리 논의를 개진한 저자들¹⁾의 성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벤야민(Benjamin), 리코르(Ricoeur), 레비나스(Levinas) 등 ‘형이상학적’²⁾ 번역윤리 담론의 핵심적 저자들을 개괄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들의 논의가 어떻게 번역학 안으로 스며들었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여기서는 주로 번역학의 영역에서 철학적 성격의 번역윤리 담론을 개진한 베르만(Berman)과 베누티(Venuti) 등 소위 ‘문화론적’ 성격의 번역윤리 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후 번역윤리 담론의 향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면서 특히 번역학에서 번역의 공간을 정치적/공동체적 장(場)으로 인식하고 윤리 논의를 전개한 핼(Pym), 베이커(Baker), 체스터만(Chesterman)의 주요 성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철학적 지평에서 번역 문제를 고민한 저자로 콰인(Quine, 1960), 데리다(Derrida, 1985) 등도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겠으나 지면의 한계상 본고에서는 번역학에 비교적 직접적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의 논의에 집중하기로 한다. 콰인에 대한 번역학 쪽의 연구로는 핼(Pym, 1993), 하이데거 관련 연구로는 에스쿠바스(Escoubas, 2010), 번역학 쪽에서의 데리다 관련 연구로는 코스키넨(Koskinen, 2000)을 참고한다.

2) 벤야민, 레비나스, 리코르의 논의를 ‘형이상학적’ 번역윤리담론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그들의 ‘언어’, ‘번역’, ‘환대’ 개념 등이 특정 언어 혹은 그 번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언어 일반’, ‘번역 일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 현대 철학에서의 번역윤리

현대철학자들 중 번역윤리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저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몇 안 되는 철학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진 저자들이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2007])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벤야민은 보들레르와 프루스트의 번역자이기도 하며, 번역학계에서도 종종 인용되는 에세이 『번역자의 과제』(1923[2008])의 저자이기도 하다. 보들레르의 파리 풍경 *Tableaux Parisiens* 독일어 번역본의 서문으로 발표된 이 에세이는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는 달리, 번역행위의 주체인 번역사보다는 텍스트로서의 번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논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번역이 기본적으로 원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파격적 주장(최성만 옮김 2008: 121)으로 시작되는 이 에세이에서 벤야민은 번역이 원전과 동일한 것을 전달하거나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급진적 주장을 토대로 개진된 벤야민의 독특한 번역윤리론을 우리는 ‘번역됨직함(translatibility)’, ‘방식(mode)’, ‘순수언어(pure language)’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개괄하고자 한다.

우선 ‘번역됨직함’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작품이 실제 번역 가능한가 여부를 의미하는 ‘번역가능성’으로 이해되고 종종 번역되지만, 벤야민에게서 이 개념은 원(原) 작품이 번역되어야만 하는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독특하게 사용된다. 어떤 작품이 번역되는 이유는 그 작품 안에 번역될만한 자질이나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 작품에 담겨 있는 어떤 요소가 번역을 ‘요청’한다는 것이다(최성만 옮김 2008: 123). 원 작품이 그 자체로 뛰어나서 번역된다기보다는, 거꾸로 어떤 원전이 번역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 원전이 작품으로서 가치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원전의 요청에 의해 탄생하는 번역은 결과적으로 원전의 “언제나 새롭게 자신의 가장 뒤늦으면서도 포괄적인 단계”를, 다시 말해 원전의 새로운 삶, 사후의 삶 *survival*(*Überleben*)을 가능케 한다(최성만 옮김 2008: 123). 즉 번역은 원전에게 일어나는 우연적 사건이 아닌 본질적 운명인 것이다.

벤야민 번역윤리론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방식’이다. 벤야민은 단순히 원전

의 의미를 재생하는 번역이 아니라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원작이 의도하는 방식을 동화”(최성만 옮김 2008: 137)시키는 번역을 지향한다. 한마디로 원전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이 번역문 안에서도 그대로 되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벤야민이 언어 그 자체의 궁극적 요소를 의미(*sense*)나 뜻(*meaning*)이 아닌 말(*word*), 형상(*image*), 어조(*tone*)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최성만 옮김 2008: 140). 이렇듯 언어의 본질이 ‘정신’이 아닌 ‘살’³⁾에 있다고 믿는 이상, 벤야민에게 윤리적 번역이란 소쉬르적 의미에서의 ‘*signifiant*’, 더 정확히는 서로 다른 ‘*signifiant*’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존중하는 번역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개별 언어의 고유한 의미작용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번역윤리를 정립하려는 벤야민의 독특한 관점이며, 벤야민의 성찰을 독특한 ‘원문중심주의’로 분류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벤야민 번역윤리의 마지막 키워드는 저자의 짧은 에세이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순수언어’라는 개념이다. 맥락에 따라 진정한 언어(*one true language, the true language*) 등과 혼용되는 순수언어는 다양한 자연언어들이 서로 관계맺음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평 역할을 한다. 벤야민 스스로도 순수언어라는 것이 번역사가 당장 규정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것이 번역이 이르러야 할 궁극적 지평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이 개념이 개별언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개별언어가 단지 ‘보다 더 큰 언어의 파편들’, ‘사기그릇의 파편 부분들’(최성만 옮김 2008:137)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은유는 어떤 조각, 어떤 개별언어도 다른 한 조각, 혹은 다른 개별언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환기시킨다.

그런데 이렇듯 대체 불가능한 조각들을 연결 짓는 작업이 번역이라면 번역은 결코 부차적 작업일 수 없다. 번역을 통해 어떤 독특한 수렴(*a distinctive convergence*)이 진행되어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선형적 근친 관계(*a priori kinship of language*)를 향해 가면서 순수언어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최성만 옮김 2008: 126). 이렇듯 언어들 간의 수렴이나 근친성을 상정하는 벤야민의

3) 여기서 ‘정신’은 언어 기호의 소위 ‘의미적’, ‘관념적’ 부분을, ‘살’은 언어 기호의 ‘물질적’, ‘질료적’ 부분을 가리킨다.

시각은 해석하기에 따라 언어들 간의 통일성(unity)이나 하나됨(oneness)을 지향하는 메시아적, 종말론적 시각으로 오해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의 성찰은 서로 다른 개별언어에 대한 중대한 깨달음을 준다. 하나의 조각은 다른 조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라는 것, 어떤 자연언어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한 언어는 여타 언어와 ‘다른’ 것이 될 때, 다시 말해 다른 언어의 타자가 될 때 진정한 언어로 설 수 있다는 점이다.⁴⁾ 개별 언어들은, 벤야민 식으로 말하자면, 번역 불가능할 만큼 완벽한 타자는 아니면서도, 서로 간의 차이만큼이나 상보적인 존재인 것이다.

벤야민에 이어 현대해석학을 대표하는 프랑스 철학자 리코르 역시 번역윤리 문제를 명시적으로 반성한 철학자 중 하나이다. 리코르의 번역 윤리에 관한 성찰은 2004년에 출간된 저서 『번역론-번역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의 번역윤리론을 ‘시련(test)’, ‘다원성(plurality)’, ‘언어적 환대(linguistic hospitality)’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한다.

리코르에 따르면 번역은 늘 일종의 시련(test, experience, épreuve)⁵⁾이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6: 70). 리코르에게 큰 영향을 준 베르만의 저서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시련은 타자, 낯선 언어와의 접촉에 늘 수반되는 불편함과 고통을 의미한다. 리코르는 타언어가 주는 시련을 ‘회상’, ‘애도’ 등의 프로이트의 용어들을 빌어 설명하며, 번역이야말로 신성한 모국어에 대한 도전이자 공격, 그리고 그에 따른 일정 정도의 상실을 감내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번역은 어찌 보면 모국어에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모국어로부터 떠나는 체험이다. 이 체험을 통해 나와 나의 모국어는 처음으로 ‘바깥’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결국 모국어의 자기완결성과 자기충족성을 포기하는 시련을 감수하는 것이 리코르 번역윤리의 첫 번째 키워드가 된다.

4) 이 대목은 뒤이어 전개될 리코르의 (언어)다원성, 언어적 환대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리코르가 순수언어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나 언어 간에 환원 불가능한 차이와 상호보완성을 강조한 벤야민의 관점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5) 베르만과 리코르의 저서에 등장하는 프랑스어 épreuve 를 영어로 옮기는 일은 간단치 않다. 이 책의 영역자는 épreuve를 ‘experience’로 옮긴 반면 리코르의 저서의 영역자는 이를 ‘test’로 옮겼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원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다원성의 수용이다. 리코르는 언어적 다원성 개념을 통해 완벽한 언어, 완벽한 번역 이념을 반박하고, 여러 언어들 중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연언어의 태생적 조건,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리코르는 바벨 사건을 긍정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언어가 가진 반성적 능력, 다시 말해 언어가 언제든지 스스로에 대하여 논할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럼으로써 모국어를 기타 여러 언어들 중의 하나처럼 간주할 수 있는”(윤성우, 이향 옮김 2006: 97)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신의 언어가 유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반성적 거리두기야말로 타자, 타언어, 타문화에 대한 열림의 시작이다. 나의 모국어가 여러 언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통찰은, 나의 언어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이 다른 언어로 말해질 수 있으며 역으로 다른 언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나의 언어가 말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낯선 다른 언어의 세계는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며, 번역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언어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이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6: 21). 이런 논리에 따르면 번역은 특정언어가 다른 언어를 위해 봉사하거나 복무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내 언어와 상대방 언어의 상호적 ‘빌둥’(Bildung) 관계를 토대로 한다.

리코르 번역윤리론의 세 번째 키워드는 길지 않은 그의 저서에서 세 번이나 등장하는 ‘언어적 환대’라는 개념이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6: 88, 89, 129). 언어적 환대란 “이국의 언어를 모국어라는 자신의 집에 맞아들임으로써 타자의 언어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데” 것이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6: 89). 앞서 시련으로 규정되었던 번역이 여기서는 일종의 환대의 기쁨으로 기술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번역은 모국어에 시련이 가해지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는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는가? 그런데 시련과 즐거움은 역설적일 수는 있으나 모순적이지는 않다. 번역의 처음이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의 모국어에 자기보존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끝이 즐거움일 수 있는 것은 번역을 통하여 자기각성의 차원으로 이동이 가

6) 독일 관념론과 고전주의 및 낭만주의에서 등장하는 중요개념으로 보통 학계에서는 ‘교양’(教養), ‘도야’(陶冶), ‘문화’, ‘형성’ 등으로 옮긴다. 한국어로는 빌둥을 ‘형성’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본래의 의미에 근접하겠으나, 여러 번역어 중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다.

능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낯선 타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은 진정한 환대가 시작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낯선 타자를 환대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 타자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내 안의 낯선 것을 발견하는 것, 리콥르식으로 표현하자면 미개척 상태로 남겨진 모국어의 자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의 충분조건일지도 모른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6: 115). 낯선 것이 주는 시련, 낯선 것의 환대가 없다면 우리는 안락한 모국어 안에 자족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언어가 가진 낯섶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리콥르가 지향하는 윤리는 타자와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가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은 결국 내가 나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번역한다는 것, 다른 언어를 알아 간다는 것, 다른 언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 자신과 성찰적 관계를 맺는 것에 다름 아니며, 역으로 자신과 자신의 모국어를 온전히 아는 유일한 방법은 타자와 타자의 언어를 맞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리콥르 번역윤리의 핵심인 것이다.

리콥르에 이어, 적어도 대륙철학 맥락에서 2차 대전 이후 윤리 문제를 가장 심도 깊게 천착한 철학자로 레비나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대인으로서의 인생역정이나 후설 및 하이데거 현상학과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레비나스에게 윤리 문제는 철학의 문제 그 자체였다. 아쉽게도 레비나스는 리콥르나 벤야민과 달리, 번역과 관련한 자신의 성찰을 체계화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만⁷⁾을 포함하여 번역, 언어 및 타자의 문제를 성찰한 저자들에게 레비나스는 늘 윤리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유수의 번역학 전문 학술지가 기획한 번역윤리 특집호에 레비나스 윤리론이 소개되기도 하였다.⁸⁾ 이것이 본 연구에서 간략하게나마 레비나스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여기서는 레비나스 성찰의 핵심인 타자와의 관계를 ‘초월성(transcendence)’과 ‘비대칭성(asymmetry)’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레비나스에게서 초월성은 정확히는 타자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란 절대적 타자이며....[].... 그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힘도 행사할 수 없다. 비록 그가 내 처분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는 본질적 차원에서 나의 포착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Levinas 1969: 39). 타자(의 언어)는 나(의 언어)를 초월하는 존재이므로 나(의 언어)는 타자(의 언어)를 결코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타자의 언어가 가지는 초월성을 번역 불가능성의 근거로 오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중요한 것은 레비나스가 근본적으로 타자를 나에게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번역에 적용시켜 보면, 타자의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해 낼 수 없는 것은 번역사의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자와 그 언어를 특징짓는 초월성 때문인 것이다. 타자는 나의 표상 능력을 넘어서는 무한차원의 초월적 존재들이며, 이를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타자와 그 언어를 나의 어떤 것으로 환원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서양철학에서 인식의 대상은 사물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다시 타자로 옮겨 왔으며, 인식 대상으로서의 타자는 자아(ego), 의식(conscience), 주체(subjec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다른 자아(alter ego), 다른 의식(alter conscience), 다른 주체(alter subject)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레비나스가 타자에게 ‘초월’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타자의 ‘인식’이 아닌 ‘환대’를 화두로 삼는 윤리학이 부상하게 된다. 타자가 그럴진대 타자의 언어 역시 더 이상 나의 언어를 통한 인식이나 파악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나의 표상이나 나의 이해범주를 통해 타자와 타자의 언어를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하는 레비나스 윤리론은 자민족중심주의적, 자언어중심주의적인 번역에 반대하는 많은 저자들의 영감의 원천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타자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비대칭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자의 윤리적 우선성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타자와 타자의 언어는 내 표상의 영역을 넘어서기에 ‘비표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타자는 단지 비표상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데 이 책임은 우리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와 타자의 언어가 나를 ‘소환(interpellation)’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나는 그 소환을 경청함으로써 책임

7) 베르만은 레비나스(1969)를 인용하며 “윤리적 행위란 타자를 타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레비나스의 주장을 자신의 번역윤리론의 토대로 삼는다(윤성우, 이향 옮김 2011: 107). 그러나 베르만은 레비나스의 번역윤리론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8) 번역학에서 레비나스 관련 논의는 라코슈(Larkosh, 2004)와 레이그(Laygues, 2004)를 참고한다.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Levinas 1969: 69). 이렇게 타자는 나를 불러 세우고, 타자의 말이 내 행위의 기원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레비나스는 타자를 내가 배려하고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게 만드는 존재로 본다. 타자가 이렇듯 나보다 윤리적으로 앞선다는 점이 바로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이유인 것이다.⁹⁾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주장¹⁰⁾에 빗대어 말한다면, 타자의 언어는 나와 나의 언어를 앞선다. 여기서 ‘앞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앞서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타자와 타언어의 윤리적 우선성이 나의 언어를 타자의 언어로, 혹은 타자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옮겨내는 번역행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물어야만 할 것이다. 나의 언어는 오직 타자의 개입을 통해서만이 타자를 책임지고 환대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인가?

3. 번역학에서의 번역윤리

이상에서 살펴본 ‘형이상학적’ 성격의 번역윤리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학의 영역 안으로 흡수되고,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 변주되었다.¹¹⁾

9) 리코르의 ‘환대’ 개념과 레비나스의 ‘비대칭’ 개념은 닮은 듯 다르다. 리코르의 환대 담론에서 타자와 타자의 언어는 결국 나와 나의 모국어로 귀환하기 위한 우회로이다. 물론 리코르도 번역의 욕망을 설명하면서 타자와 타자의 언어가 나와 나의 언어를 초대하고 부른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초대는 자기 겸손과 자기 결핍의 인정, 그리고 타자의 우회를 거쳐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열망에 가깝다. 반면 레비나스에게서 타자와 타자의 언어는 오히려 나와 나의 주체성, 책임성을 구축해내는 모태(matrix)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로부터의) 명령은 타자에 대한 극도로 엄중한 윤리적 배려나 대응을 요구한다(Levinas 1996: 89). 이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은 리코르(Ricoeur 1992: 332-341)를 참조한다.

10) 이 문장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담다. 사물의 본질은 누군가 그것을 만들 때 결정되고 따라서 ‘이 사물의 본질은 이것이다’로 정의될 수 있으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물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본질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결단과 책임으로 오롯이 짊어져야 할 ‘실존’이 그에게 맡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이 본질에 비해 근본적이며, 우월하며, 앞선다.

지면의 한계상 앞서 언급한 철학적 윤리론과 비교적 직접적 영향관계에 있는 최근의 번역학 연구자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번역학에서의 철학적 번역윤리론은 베르만과 베누티로 압축된다는 것에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선 베르만의 번역론은 잘 알려진 대로, 17세기 벨 앙피델(Belles infidèles)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자문화중심주의적 번역관행을 비판하며 이와 대척점에 있는 독일 낭만주의시대의 다양한 번역 시도들을 소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낯선 것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공간으로서의 번역을 철학적, 문학적으로 성찰하는 동시에, 번역 과정에서 번역사가 피해야 할 다양한 왜곡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된 번역윤리론이라고 볼 수 있다. 베르만의 번역윤리에 대한 성찰은 그의 저작 세 권¹²⁾을 중심으로 대체로 아래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저서에서 저자는 독일의 낭만주의 문화의 기원과 성립에 있어서 번역의 기여와 역할을 탁월하게 분석하면서 번역이 진정으로 도달해야 하는 지향을 열림, 타자와의 대화, 혼혈, 탈중심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본원적 지향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이념적 및 문화적 왜곡들을 비판하면서 번역을 통한 ‘낯선 것’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9: 18-23)¹³⁾

두 번째 저서에 이르러 저자는 번역의 과정에서 피해야 하는 왜곡들을 열거한다. 즉 원문보다 번역문이 길어지는 ‘길이의 증가’, 원문을 미화시키는 ‘고상화’, 원문의 기저에 뿌리박은 ‘시니피앙 망의 파괴’, 원문에 등장하는 ‘관용어구의 파괴’ 등은 분명 번역사가 피해야 할 덧의 목록, 다시 말해 구체적 번역도덕의 항목들이다(윤성우, 이향 옮김 2011: 74-97). 동시에 베르만은 좋은 번역이란 단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원작의 세계’를 드러내 주는 번역이라고 설명한다(윤성우, 이향 옮김 2011: 110).

11) 번역학 안에서 번역윤리 문제를 다룬 국내의 주요 저자와 연구들에 관해서는 이향 (2017)을 참고한다.

12) *L'Épreuve de l'étranger* (1984),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1986/1999),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1995) 등 세 권을 지칭한다.

13) 베르만의 첫 번째 저서 및 그의 번역론 일반에 대한 추가 논의는 윤성우, 이향 공저 (2013: 196-241)을 참고한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냄’이란 무엇인가? 번역은 원전에 담겨 있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 번역의 윤리적 지향에 대한 베르만의 독특한 성찰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원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어떤 세계의 ‘드러냄’이다. 그렇다면 번역은 원전에 드러난 세계를 다른 언어로 드러내는 작업, 다시 말해서 드러냄의 드러냄(manifestation of manifestation)이다. 베르만은 번역사가 드러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을 낯선 언어의 ‘살적 신체성’의 담지자인 원작품의 문자(lettre)로 규정한다(윤성우 이향 옮김 2011: 112-113). 타언어가 가진 낯섬의 요체가 바로 문자인 만큼, 바로 문자에 충실한 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번역이라는 것이 베르만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베르만의 관점에서 윤리적 번역이란 문자의 번역이다.¹⁴⁾

그의 마지막 저서이자 유작에서 이르러 비로소 윤리성(éthicité)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다(Berman 1995). 여기서 베르만은 번역을 평가하는 두 가지 핵심적 기준으로 시성(poeticité)과 윤리성(ethicité)을 언급한다(Berman 1995: 92). 번역문이 ‘시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원전의 결(textuality)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번역문이 하나의 온전한 텍스트(작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베르만은 윤리성이라는 것이 원문에 대한 일정한 존중에 바탕을 둔다고 말하면서, 마송(Masson)의 입을 빌어 존중을 ‘원문과 대화하고, 그것에 대면하고, 그것에 머리를 들이대는 것’(Berman 1995: 92)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윤리적 번역이란 원문에 조응(correspond)하는 번역인 것이다(Berman 1995: 94). 이런 의미에서 윤리적 번역이야말로 베르만에게 번역의 이상(理想)이자 궁극(窮極)인지도 모른다.

베르만의 성찰은 또 다른 중요한 저자인 베누티에게로 계승, 발전된다. 들뢰즈, 바디유, 베르만 등 프랑스 저자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베누티는 미국을 위시한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에서 비가시적 존재로 격하된 번역사의 지위에 주목한다. 그런데 베누티의 번역윤리론은 초기담론과 이후의 담론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베누티의 초기 성찰은, 번역의 본질을 열림과 대화, 탈중심으로 보고 원전의 낯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베르만 번역론의 연장선상

에 있다. 다만 베르만이 문자의 번역을 통한 낯선 것의 존중 자체에 주목했다면, 베누티는 수용문화 안에 지배적 언어나 문화와 다른 어떤 것을 창출해 내는 번역의 위력에 주목한다. 번역이란 자국의 가치와 실천들이 어떠한지, 그것과 다른 가치들과 실천들을 창안해 낼 수 있는 것이기에 문제적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의 윤리야말로 번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윤리라는 것이다(임호경 옮김 2006: 145). 따라서 베누티에게서 ‘낯섬’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이다. 베누티는 수용문화 안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번역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라고 생각한다. 차이는 지배적 규범에 반하는 번역방식을 택함으로써 뿐 아니라 수용문화가 정전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다른 유형의 작품을 번역함으로써도 구현될 수 있다(임호경 옮김 2006: 148-149). 이와 관련하여 베누티는 들뢰즈의 소수성(minorité)¹⁵⁾ 개념을 번역에 적용시켜, ‘좋은 번역은 소수화하는 번역’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임호경 옮김 2006: 27). 소수화하는 번역이란 표준어와 정전의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번역, 비표준적이고 주변적인 것에 열려있는 번역이다. 베누티의 관점에서는, 설령 원문언어를 모르는 번역사가 번역한 것이라 해도, 수용문화의 지배적 규범에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나쁜 번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베누티는 베르만의 번역윤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선다. 베누티는 낯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번역, 즉 베르만이 권고한 ‘원전의 문자에 충실한 번역’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Venuti 2013:186). 어떤 매개도 없이 원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민족중심주의는 모든 번역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베르만이 한편으론 번역을 통해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번역이 지배규범으로서의 일탈을 통해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혁신적 관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Venuti 2013: 187). 그러나 차이를 보존하는 것을 번역의 윤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으로서 이국화하는 번역을 제안한 베누티 역시 자신의 성찰의 공간을 이루는 개념들(가령 foreignizing, restant, remainder, minoritizing)을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¹⁶⁾

14) 베르만의 성찰에 대한 논의는 Yun & Lee (2011: 336-346)를 참조한다.

15) 들뢰즈와 베누티의 언어론과 관련하여서는 윤성우, 이향 (2013: 56-76)을 참고한다.

4. 기존 논의의 한계 및 향후 논의의 방향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번역윤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번역학적 논의들이 학제적 공간에서 충분히 교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철학에서의 번역윤리에 관한 성찰은 번역학에서의 번역윤리 논의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둘째, 철학의 영역에서 개진된 번역윤리 담론은 번역학에서의 윤리담론에 비해 형이상학적이거나 존재론적 성격을 가진다. 번역윤리는 주로 추상적,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언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벤야민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사의 역할이 언급된다 하더라도 거의 선언적,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그에 비해 번역학의 공간에서 번역윤리 논의를 개진한 베르만과 베누티에 이르러 번역윤리 담론은 보다 문화론적 성격을 띠게 된다. 논의의 초점도 ‘언어’라는 일반적 층위가 아닌 구체적 텍스트나 작품 차원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번역행위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논의도 훨씬 구체성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베르만과 베누티 이후의 번역윤리 논의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철학적 성격의 윤리담론에 초점을 맞춘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2000년대 이후 뫼, 베이커, 체스터만(Chesterman) 등에 의해 주도되는 번역윤리 담론은 분명 베르만이나 베누티의 그것과 다른 패러다임에 속한다. 이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텍스트나 작품이 아닌 번역사, 번역 주체를 번역윤리 논의의 중심에 둔다. 물론 베르만과 베누티에게서 번역행위의 주체인 번역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르만(Berman 1999)에게서 번역사의 정체성 문제, 한마디로 번역사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의 분석을 거쳐서 우회적으로 주어지는 메타적인 결과물이다. 베누티(Venuti 1995) 역시 번역이 번역처럼 읽히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한마디로 유창함(fluency)이 주도하는 번역문화 안에서 번역사의 역할이 은폐되어 왔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 바 있다. 한마디로 번역사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否定的) 윤리의 측면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 의미에서 번역사의 지위는 뫼이나 체스터만, 베이커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¹⁷⁾ 이들의 관심사는 더 이상 작품이나 텍스트가 아닌 번역행위의 주체로서의 번역사이다. 물론 번역사를 문화간 가교(bridging between cultures) 역할을 하는 중립적 중개자로 보는 뫼의 방향과, 번역사를 재서술(renarration)의 산출자, 즉 1차적 이야기의 질곡에 빠진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 변화시키는 2차적 이야기의 산출자로 보는 베이커의 시각은 분명 다르다(Baker 2008: 10). 뫼가 중개자로서의 번역사, ‘협력’을 제고하는 매개자로서의 번역사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베이커는 번역사의 반성¹⁸⁾(self-reflexivity) 능력이야말로, 주어진 문제적 상황에서 윤리적 결단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체스터만의 번역윤리 논의 역시 기존의 형이상학적, 문화론적 윤리담론과 결이 다르다. 체스터만은 번역사의 결정을 조건 짓는 네 가지 가치, 즉 진리(truth), 명확성(clarity), 이해(understanding), 신뢰(trust)를 언급하면서 직업윤리의 나머지 세 가지 가치들을 지배하는 ‘이해’, 즉 고객의 요구 이해, 원천텍스트 이해, 독자의 기대 이해 등이야말로 번역사가 복무(commitment)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말한다(Chesterman 2001: 146,152). 물론 체스터만이 이해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해서, 베이커가 말하는 정치적, 윤리적 자기결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스터만의 번역윤리는 분명 번역사가 속한 공동체의 직업윤리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보편적 윤리라는 보다 포괄적 지향을 가진다.

그렇다면 소위 ‘문화론적’ 번역윤리를 논하는 베르만이나 베누티 이후에 등장한 뫼, 베이커, 체스터만 등의 번역윤리를 관통하는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를 잠정적으로 ‘정치적/공동체적’ 번역윤리 담론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뫼의 경우 번역사의 ‘정치적’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

17) 이와 관련하여서는 번역윤리문제에 할애된 *The Translator*의 특별호(2001, 7(2)), 베이커(2006, 2008) 등을 참고한다.

18) 베이커의 논의에서 ‘반성’은 첫째, 번역사가 번역을 통해 개입하는 상황의 정치적 맥락 이해, 둘째, 해당 상황을 지배하는 내러티브의 발견, 셋째, 기존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저항적 내러티브의 제안 등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16) 베누티가 사용한 개념의 모호성을 비판한 연구로는 티마즈코(Tymoczko 2000)를 참고한다.

다. 그러나 뫼이나 체스터만은 공통적으로 번역사가 활동하고 행위하는 장, 혹은 번역행위의 영향력들이 행사되는 장(場)이나 공간에 대한 번역사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베이커의 경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번역사가 ‘정치적’ 대의를 위해 윤리적 결단을 내리는 존재이며, 또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철학의 영역에서 개진된 형이상학적 번역윤리를 개괄하고, 번역학에서의 문화론적 윤리담론들을 개괄하면서 번역윤리 담론의 주요 이정표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 연구가 향후 철학과 번역학의 접점에서 본격적인 번역윤리 논의가 개진되는데 자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윤성우, 이향 옮김 (2006)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철학과현실사. (Ricoeur, Paul, 2004, *Sur la traduction*, Bayard).
- 윤성우, 이향 옮김 (2009)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독일 낭만주의 문화와 번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윤성우, 이향 옮김 (2011)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서울: 철학과현실사.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Seuil).
- 윤성우, 이향 (2013) 『번역학과 번역철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서울: 열린책들.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Routledge).
- 이향 (2017) 「번역윤리 논쟁: 베이커(Baker) vs 뫼(Pym)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8(3): 207-226.
- 최성만 옮김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서울: 길. (Benjamin, Walter, 1977[1936],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Frankfurt: Suhrkamp).

- 최성만 옮김 (2008)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 번역자의 과제 외』, 서울: 길. (Benjamin, Walter, 1923, *Die Aufgabe des Übersetzers*, Heidelberg: Verlag von Richard Weißbach).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8) ‘Ethics of renarration: Interviewed by A. Chesterman’, *Cultus*, 1(1): 10-33.
- Baker, Mona (2010)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War Zone: Narrated and Narrators’, in M. Inghilleri & S.-A. Harding (eds.) *Translation and Violent Conflict*, Special Issue of *The Translator*, 16(2): 197-222.
-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Berman, Antoine (1995)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Paris: Gallimard.
-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Seuil.
- Derrida, Jacques (1985) ‘Des tours de Babel and trans.’ in Joseph F. Graham (ed.) *Difference in Translatio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Escoubas, Eliane (2010) ‘Traduction et Histoire de la vérité’, in *Questions heideggeriennes-Stimmung, logos, traduction, poésie*, Paris: Herman.
- Koskinen, Kaisa (2000) *Beyond Ambivalence: Postmodernity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 Larkosh, Christopher (2004) ‘Levinas, Latin American Thought and the Futures of Translational Ethics’, *TTR*, 17(2): 27-44.
- Laygues, Arnaud (2004) ‘Le traducteur semeur d'éthique: pour une application de la pensée d'Emmanuel Lévinas à la traduction’, *TTR*, 17(2): 45-56.
- Levinas, Emmanuel (1969)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Translated by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Original text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published in 1961,

The Hague: M. Nijhoff].

Pym, Anthony (1993) *Epistemological Problems in Translation and Its Teaching: a Seminar for Thinking Students*, Teruel, Spain: Edicions Caminade.

Quine, Willard Van Orman (1960) 'Translation and Meaning', in *World and Object*, Cambridge: MIT Press.

Ricoeur, Paul (1986) *Du texte à l'action*, Paris: Seuil.

Ricoeur, Paul (1990) *Soi-même comme un autre*, Paris: Seuil.

Tymoczko, Maria (2000) 'Transl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Translator*, 6(1): 23-47.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Routledge.

Venuti, Lawrence (2013)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Yun, Seong-Woo & Lee, Hyang (2011) 'Antoine Berman'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Language and Translation: The Possibility of Translating without Platonism', *Filozofia*, 66(4): 336-346.

[Abstract]

A Paradigm Shift in the Discourse on Translation Ethics

Yun, Seong-Woo · Lee, H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lation is a medium through which different languages meet. The question of how one language should treat the language of the Other—a question of ethics—is crucial for this medium. As this is an apt topic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philosophy and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explores how the two disciplines have influenced each other's discourse on translation ethics.

We first examine the manner in which philosophers have approached the ethics of translation. We study the metaphysical reflections on translation ethics by Walter Benjamin, Paul Ricoeur, and Emmanuel Levinas. We then turn to how translation scholars view translation ethics, focusing on the "cultural approach" proposed by Antoine Berman and Lawrence Venuti, whose works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the aforementioned philosophers. Finally, we analyze both approaches and identify recent changes in Translation Studies, primarily concerning the shift in emphasis from translation to the translator.

▶ Keywords: translation ethics, Walter Benjamin, Paul Ricoeur, Emmanuel Levinas, Antoine Berman, Lawrence Venuti

▶ 주제어: 번역윤리, 벤야민, 리쾨르, 레비나스, 베르만, 베누티

윤성우

한국의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swyun2002@gmail.com

관심분야: 해석학, 언어 및 번역철학, 번역인식론

이향

한국의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부교수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번역학연구방법론, 번역윤리, 번역학 발전사, 번역학의 제도화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6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5일